

名君·聖君 곁에는 언제나 유능한 신하가 있었다

참모로 산다는 것(개정판)
신병주 | 매경출판(주)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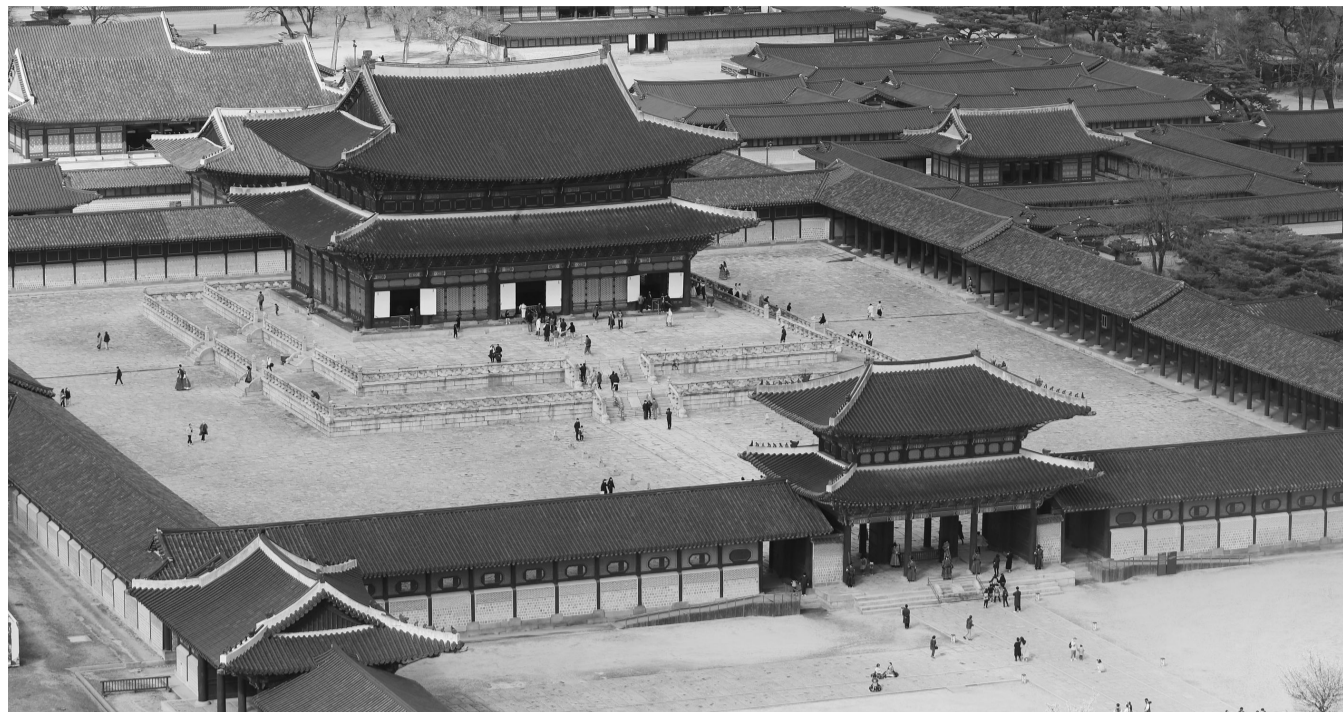
방송프로그램 '역사 저널 그날', '차이나는 클래스' 등에서 명 패 널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 전문가 신병주 교수가 '참모로 산다는 것' 개정판을 출간했다.

전작이 조선의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폈다면 '참모로 산다는 것' 개정판은 왕을 도와 조선을 이끌어간 참모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 조선의 역사다.

조선 후기 사색당파(四色黨派)를 필두로 당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왕의 참모이면서 당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한 참모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을 대표하는 참모들의 등장 배경과 활동, 그리고 그들의 삶이 현재에 주는 의미를 담았다.

건국과 창업의 시기에 개혁을 진두지휘한 김메이커 삼봉 정도전을 시작으로 세종-성종 시대 문물과 제도를 정비한 한명회·신숙주·서거정, 왜란과 호란 등 전란의 시기 전쟁 극복에 힘을 다한 유성룡·최명길·장만, 당쟁이 치열하던 시기 당파의 수장이자 참모로 활약한 송시열·김석주 등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를 흔들었던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7개의 장으로 나눠 참모 42명을 다루었다.

격변의 시기 조선 전기에는 김메이커형 참모들이 다수 탄생했다. 태조의 정도전, 태종의 하륜, 세조의 한명회와 신숙주 등이 대표적이다. '1장 새 왕조를 설계하다'에서는 건국의 최대 공로자였지만 신권 중심주의를 주장하다 결국 제거되는 정도



조선시대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신병주 교수가 왕을 도와 조선을 이끌어간 참모를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를 기술한 '참모로 산다는 것' 개정판을 출간했다. 사진은 1395년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지어진 조선왕조의 법궁 경복궁. 뉴시스

전을 소개한다. 정도전은 고려 말에는 혁명가로, 혁명을 성공시킨 후에는 조선왕조의 설계자로 생애를 마쳤다. 그가 구상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은 500년 이상 왕조가 존속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 이방원이 왕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하륜, 세종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한명회, 신분을 넘어 과학 조선을 이끈 장영실, 죽음으로 단종을 지키고자 한 성삼문, 성삼문과는 엇갈린 행보로 역사에 변절자로 남았지만 누구보다 유능했던 관료 신숙주를 다루었다. 특히 세종은 자신을 돕는 참모형 인재들을 적극 발탁했다. 천민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 집현전의 중심 성삼문이 그들이다.

훈구와 사림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성종은 서거정, 김종직, 김일손 등에게 고르게 역할을 맡겨 제

도와 문물 정비를 완성했다. '2장 국가의 기틀을 다지다'에서는 조선 초기 최고의 문장가인 서거정과 강희맹을 참모이자 문장가의 관점에서 살폈고, 간신·칠삭 등이 등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세조를 보좌하는 노화한 정치가 한명회, 피비린내 나는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과 그의 제자 김일손, '악학궤범'을 편찬한 예술 분야의 참모 성현을 다루었다.

'3장 폭군의 실정에 흔들리다'에서는 연산군의 마음을 뒤흔든 참모 장녹수, 폭정에 기름을 부은 간신 임사홍과 중종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다가 '주초지왕'의 역모 혐의를 쓰고 나락으로 떨어진 조광조, 호남 사림의 자존심 김인후와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의 양대산맥으로 활약한 조식을 다루었다. 왜란이나 호란과 같은 국가

위기에 왕을 보좌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인 참모들이 있었다. 전시 정부를 이끌어간 영의정 유성룡, 결사항전 조헌 의병장, 탁월한 외교력으로 위기를 해결한 이덕형이 그들이다.

'4장 임진왜란, 조선의 위기를 겪다'에서는 '십만양병설'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선조 시대 최고의 참모 이이를 살폈고, 선조와 애증의 관계, 가사문학 분야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긴 정철,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 일본 장수 '사야가'에서 조선의 충신이 된 김충선, 임진 7년전쟁의 기록인 '징비록'을 남긴 유성룡을 다루었다.

'5장 광해군의 그늘 속 참모들'에서는 뛰어난 외교 참모 '오성과 함음'의 이덕형, 그 개혁적인 성향으로 실록에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된 조선의 이단아 허균, 북인 세력의 중심 광해군의 남자 정인홍, 상

궁의 신분으로 국정을 좌지우지한 광해군의 참모 김개시, 조선의 관료로서 영의정을 여섯 번 지낸 이원익을 살폈다.

선조에서 인조에 이르는 시기는 장만과 같이 국방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참모도 있었으며, 최명길처럼 실리론을 관철시켜 병자호란의 희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공헌한 참모도 있었다. 피폐해진 민생 경제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참모로는 김신국, 조경, 김육 등을 소개했다.

'6장 명분과 실리 사이, 인조반정'에서는 광해군의 폭정에 반정을 일으켜 왕의 자리에 오른 인조를 중심으로 명과 청의 갈등 속에서 조선이 처한 상황과 병자호란의 과정과 극복을 다루었다.

'7장 당쟁의 시대와 실학'에서는 비상한 실물 경제 감각으로 수차·화폐 등을 도입해 민생을 돌봤던 경제학자 김육, 서인과 남인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숙종시대 정치공작의 달인 김석주, 독특한 글씨 풍으로도 알려져 있는 소신과 원칙의 학자 허목, 정치와 사상의 중심이자 신권의 핵심이었지만 사약을 받은 송시열, 개혁정치를 추구하던 정조의 참모이자 실학자로 이름을 남긴 정약용 등을 다루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최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저히 견제하기도 했던 조선시대 참모들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왕조시대가 끝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가 도래했지만, 조선시대 참모들이 갖추었던 덕목들은 반복이라는 역사의 속성 앞에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조선의 역사를 한눈에 알려주는 유용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최도철 기자 docheol.choi@jnilbo.com

상한 마음 어루만지는 깊고 진지한 애도

선재의 노래
공선옥 | 창비 | 1만4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닐까. 깊고 깊은 슬픔 속에서 선재 이야기를 썼다. 슬픔이 슬픔을 어루만져 주었다. 슬픔은 또

다른 슬픔에게 안식을 준다. 내 슬픔 속에 들어와 쉬라고, 편한 자리를 내준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생생한 언어로 삶의 깊은 이면을 포착해 온,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공선옥의 신작 소설 '선재의 노래'가 출간됐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열세 살 선재가 갑자기 할머니를 여읜 뒤 슬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할머니를 잃은 선재의 마음과 선재를 보듬는 마음 이웃들의 정이 가슴을 울린다.

재난, 팬데믹 등 무수한 죽음과 이별이 지나간 자리에 꼭 필요한 작품이자 깊고 진지한 애도가 빛나는 소설이다. 어떤 이에게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또 다른 이에게는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떠올리게 하는 이번 작품은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읽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성장소설이다.

중증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만 할머니

님의 사랑으로 부족할 것 없이 지내 왔던 열세 살 선재에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늘 선재의 곁에 함께할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다. 할머니가 쓰러진 날,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장에 따라가지 않은 일이 선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연락이 닿는 친척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은 선재는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체취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온다.

괜한 심통이 나서 어리광을 부렸던 날 보았던 할머니의 숙울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조곤조곤 선재의 말을 받아 주던 다정한 목소리, 언제고 선재의 편이 되어 주었던 든든한 팔까지, 다시는 보지 못할 할머니 생각에 선재는 눈물과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선재의 노래'는 상실과 이별을 함께 슬퍼하고 울어 주며 애도하는 소설이다. 작가의 말에 언급되듯, 슬픔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슬픔이다. 선재의 사연에 빠져들어 읽다 보면 소설이 건네는 맑은 공감과 위로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선재의 노래'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진정한 애도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소설이다. 할머니와의 추억부터 사랑하는 이와 이별까지, 선생님과 학부모, 청소년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마음을 나누기에 맞춤형 성장소설이다.

최도철 기자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노승의 삶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스님 | 불광출판사 | 1만7000원



1980년대 법정 스님, 오현 스님과 함께 '사랑하며 용서하며'로 필명을 드날렸던 향봉 스님이 '노승의 글쓰기'를 내놓았다. 산골 노승이 온몸으로 펼쳐 보이는 삶의 애환, 그리고 깨달음을 기록한 '산골 스님의 화려한 점심'이다.

회복하는 마음
박상희 | 상상출판 | 1만7000원

'사건반장', '고당엄빠' 등 수 천회 방송출연과 20년간 방송 패널로 활동한 심리상담사 박상희가 26년 동안의 사례 연구를 담은 신간 '회복하는 마음'을 펴냈다. 저자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심리상담사다. 단순히 학구적인 분석이 아니라 직접 부딪치고 맞서며 내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홀로 아픈 사람들을 위한 마음 처방서인 이 책은 박상희가 만난 25인의 사연 그리고 치유의 여정을 담아 불안을 떨치고 회복을 위한 동행을 돕는다.

향봉 스님은 잊힌 스님이다. 짧은 한때,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시절도 있었다. 불교계 권력의 실세 역할도 해보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뒤늦게 철이 들어', 마흔 무렵 훌연히 자취를 감췄다. 15년간 인도와 네팔, 티베트, 중국을 떠돌며 구도행을 이어갔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익산 미륵산 사자암에 머무르며,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하며 산다. 그렇게 70대 중반의 노승이 되었다.

향봉 스님의 글은 담백하지만 맛깔스

럽다. 유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울림이 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울컥해진다. 유쾌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따라가며 입가에 미소가 번지다가도, 어느새 먹먹하고 절절해진다. '눈물방울 두어 방울' 적시지 않고는 책장이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흔하지 않은 글맛이다. 오랜만에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스님이 겪어온 삶의 역경과 치열한 구도기 속에서, 진리와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자유인의 삶'이 드러난다.

최도철 기자

언어가 숨어있는 세계
김지호 | 한겨레출판 | 1만6000원

첫 책 '말문이 터지는 언어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18년 차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김지호가 2007년부터 지난 겨울까지 만났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를 에세이로 썼다. 이 책은 저자의 내밀한 수업 기록임과 동시에 아이들과 선생님의 담담하고 진지한 성장 기록이다. 그리고 저자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 저자는 수업을 하며 아이들에게 못다 전했던 마음들과 타전할 수 없었던 말들을 각각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이 책에 기록했다.

해제를 꿈꾸며
원상 스님 | 시간여행 | 1만5000원

원상 스님의 수상집(隨想集) '해제를 꿈꾸며'는 연꽃마을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자 애쓴 결과물이다. 한낱 미물 중생일지언정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스님의 지론과 행동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은 스님이 가지고 있는 불교와 삶에 관한 예리한 직관과 역설, 문사가 갖는 가슴 따뜻한 정서를 함께 보여준다. 또지행합일을 통해 단호함의 필요성과 독자에게 공감 가는 이야기로 감동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